

하천의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 3

River & Cul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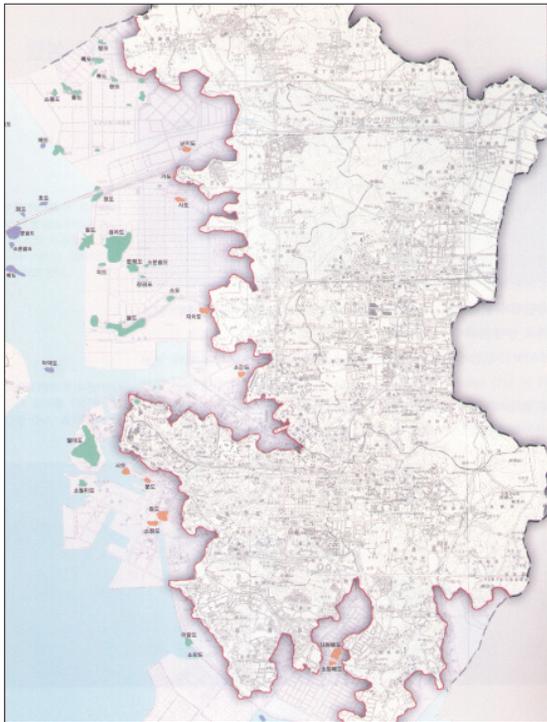


최혜자 | 인천경실련 사무국장
(iccej@hanmail.net)

승기천의 미래 하천이 살아야 도시가 산다

인천하면 사람들은 무엇을 제일 먼저 떠올릴까?

갯벌과 인천앞바다. 섬, 인천항, 뿌연하늘, 수많은 공장의 굴뚝에서 쏟아지는 시커먼 연기, 자동차에서 뿜어지는 매연,



인천 해안선의 변화: 이 지도의 빨간색 가지가 원래의 인천해안이었다. 빨간선 밖은 간척지이다. 매립으로 인해 인천은 무늬만 리아스식 해안인 지형으로 변해 버렸다.

미세먼지, 타도시보다 높은 암발생률, 오염된 하천 등이다.

먹고살기 어려웠던 시절 경제성장에만 집중했던 근대화 과정에 인천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대들보 역할을 해왔지만 인천의 하천은 철저히 소외당해 왔다. 토박이들보다는 타 지역 출신들이 많이 살고 있어 지역에 대한 응집력이 낮고, 평생을 살고 싶기 보다는 좀더 나은 여건이 되면 떠나고 싶은 곳이 인천이었다고 한다. 그만큼 인천의 삶의 질은 척박했다.

인천의 하천은 수질오염과 건천화, 그에 따른 악취로 하천이라는 본래 이름은 잊혀지고 하수구로 시민들의 관심에서 서서히 멀어지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인천의 하천을 사랑하는 시민들 사이에서 하천을 본래의 모습으로 되살리고자 하는 조용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었다.

도시하천은 시민의 삶의 질을 대변하는 하나의 표상이며 도시환경의 바로메타이다. 도시환경이 좋지 못하면 도시하천이 건강하지 못하고 도시하천이 건강하면 그 도시가 살기 좋고 건강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하천은 환경적 측면과는 별도로 시민의 삶의 질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시민의 삶에 여유를 주고 생태적 감수성을 살려주어 심리적 안정감 등 무형의 가치를 창출한다.

하천은 녹지를 비롯한 생태계의 연결고리로서의 역할과



그 지역의 역사와 문화, 사회, 경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떠나고 싶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 도시로 경제력을 포함하여 취약했던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하천을 되살리는 것은 도시를 되살리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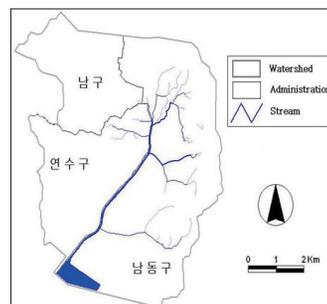
과거 인천하천 현황

인천은 계양산(395m), 철마산(226m), 문학산(213m)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이 200m 미만의 구릉성 산지로 평야 발달이 적고, 해안까지의 거리가 짧아 큰 하천의 발달은 없다. 굴포천(17.6km)을 제외하면 대부분 유로 10km 미만의 소규모 지방하천 정도의 규모로서 도심지역에 위치한 대부분의 하천이 자연적인 유지용수가 부족하거나 없는 상태였으며 홍수를 제외하고는 일반 생활하수와 폐수가 하천 흐름의 주종을 이루고 있었다. 단적인 예로 최근까지 공업단지 주변의 하천은 일반 생활하수보다 공장폐수가 다량 유입되어 상당히 높은 오염도를 보이고 있었다. 하천에 대한 인천시민들의 의식도 부족하여 주변의 하천을 단순한 하수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일상생활과 결부시켜 하천을 생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실정이었다.

통상 하천에 흐르는 물이 적을 경우 하천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렵고, 하천에 흐르는 물의 수질이 매우 나빠 생물들이

거의 살 수가 없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상호 연관성이 깊어서 하천을 흐르고 있는 물의 양이 적어지면 하천은 자연스럽게 오염되어 가고 수질이 좋지 않은 하천에는 흐르는 물의 양이 많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인천의 하천을 살리기 위해서는 수질 개선과 수량 확보가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하천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인천시의 체계는 수질보전과가 하천의 수질, 건설방재과가 수량과 관계된 방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서 하천의 문제를 서로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기 일쑤였다. 이로 인해 인천의 죽은 하천을 살릴 수질과 수량의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서로 다른 입장의 부서 간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실정이었다.

승기천의 유역현황



승기천 유역현황도

승기천은 서해로 직접 유입되는 하천으로서 유역면적 33.58 km², 유로연장 10.33km의 지방하천이다. 유역의 상류부가 인천 중심가인 남구 주안



동에 위치하고 중·하류부는 우안측으로 아파트가 조성된 인구 밀집지를 이루고 있으며, 좌안측으로는 남동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하상경사는 매우 완만한 경사를 보이고, 상류부의 하천 폭은 45~85m, 중류부 80~105m, 하류부 104~110m로 매우 넓게 형성되어 있으나, 구월농산물 도매시장 관리소를 기점으로 상류부 하천은 복개되어 하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이다.

유역하구는 남동유수지로 유입되며 홍수 및 내수침수피해로부터 보호되고 있으나, 바다와 차단되어 종점을 맞기 때문에 감조하천의 특성인 해수의 유입이 없고 자정작용에 의한 오염물질의 희석효과가 전혀 없으며, 자연형하천조성사업 이후 많은 부분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공단과 아파트 단지에서 오·폐수가 유입되어 악취가 나고 저질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다.

송기천의 지형변천

- 1910년대 : 송기천 주변지역은 서해와 연결된 만

- 1960년대 : 일부 내륙지역에 제방을 쌓고 염전으로 이용
- 1970년대 : 내륙의 일부지역을 간척하여 농경지로 이용
- 1980년대 : 대부분의 지역을 간척하여 농경지로 이용
- 1990년대 : 남동유수지 건설, 염전지역을 완전 간척, 주거단지와 공업단지 조성, 전체 해안선 직선화
- 2000년대 : 대규모 매립을 통한 송도 경제자유구역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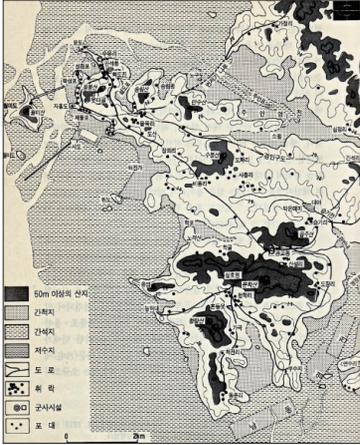


송기천 하류부인 송도매립의 역사

송기천의 물길을 바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송기천의 원래 물줄기는 지금 물줄기와 확연히 달랐다. 선학동 ~ 남촌동 ~ 논현동 등 갯마을 주변의 갯골을 흐르던 물줄기들이었다. 남동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물길이 현재의 물길로 바뀌었다. 남촌동은 지금은 남동공단과 연지택지로 변했지만 구한말 까지 '염밭'이라고 불렸다. 그 당시까지

현재 문학경기장 인근 경인고속도로 고가가 지나는 곳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었다.



국토와 민족생활사에 나오는 인천지도 (1997, 최영철)

1980년 신군부의 국보위 상임위원회는 갈 데 없는 수도권 공해공장이전 촉진지역으로 서울 및 인천항과 경인고속도로 근거리에 위치한 최적의 위치라는 장점 때문에 공단 조성 대상지를 인천시 남동구 폐염전 부지로 공단 조성계획을 확정짓고, 수도권문제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후, 1984년 4월 경제장관 회의에서 한국토지개발공사(현재 LH공사)를 사업 시행자로 결정하여 1985년 2월 총 1,700억 원을 투입 총 면적 956만5천536㎡를 매립 공단터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시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았다. 이로 인

해 승기천 주변의 남촌·도림·논현·고잔·동춘동 등지의 남동염전 소금밭 85만평이 공업용지로 바뀌게 되었다.

인천하천살리기 운동의 시발점이 된 승기천



승기천 정화활동

인천경실련은 1997년 인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와 공동으로 '인천지역의 하천수질 오염정도 조사'와 '인천시 하천수질오염

지도 작성'을 추진했다. 당초 하천 수질오염조사는 학생들의 교육을 목적으로 시도하였으나 이 조사 활동의 성과가 시민운동으로 이어져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하천수질오염지도 작성을 하게 이르렀다. 이는 그간의 환경운동이 오염도조사 및 고발 등의 방식에 중심을 둔 것에서 하천의 현주소를 시각화시켜 하천을 하수구로만 생각하고 살던 인천시민을 일깨우는 하천살리기운동의 시발점이 되었다.

인천의제21 하천사랑운동지표

지 표		1997년	2000년	2003년	2008년
물놀이 할수있는 하천	아이들의 물놀이가 가능한 하천 (강화, 영종 등 도시하천)	동락천 BOD 34ppm 내가천 BOD 6ppm	- 물놀이 공간계획 수립완료 - 10ppm 이하	- 물놀이 공간 설치 완료 - 5ppm	- 송사리 뛰어넘 - 3ppm 이하
	가족활동이 가능한 하천 (경인운하 및 굴포, 장수천)	굴포천 BOD 49ppm 장수천 BOD 7ppm	- 수로정비계획 수립 완료 - 15ppm 이하	- 물놀이 공간 설치 완료 - 10ppm 이하	- 자연형하천정비 1/2 완료 - 휴식공간 일부 설치 - 5ppm
살아 숨쉬는 하천	뉘시가 가능한 하천 (공천·시천·심곡천)	심곡천 BOD 78ppm 시천천 BOD 6ppm	- 생태하천정비 계획 수립완료 - 15ppm 이하	- 하류에 붕어 있음 - 10ppm	- 하천유지용수 개발 완료 - 5ppm 이하
	생물 생존이 가능한 하천 (승기·만수천)	승기천 BOD 53ppm 만수천 BOD 37ppm	- 하상정비기본계획 수립완료 - 20ppm 이하	- 하상정비 20% 완료 - 15ppm 이하	- 하상정비 1/2 완료 - 하류에 지표생물 출현 - 10ppm 이하

※ 인천 하천의 현실태와 향후 개선방안 등을 감안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되어야 할 하천과 현재 죽어있는 상태를 회복시켜 생물이 살아 숨쉬어야 할 하천으로 구분하여 개선목표를 설정

※ 지표는 외부 확인이 가능할뿐만 아니라 상징성이 있는 지표로 설정하였으며, 지속적인 수질의 개선성도를 파악하기 위해 BOD 지표를 첨가

(자료 : 인천의제21 물분과 지표)

아울러 인천경실련은 지역의 대표적 거버넌스 기구인 인천의제21추진협의회 물분과 간사단체를 맡아, 떠나는 인천이 아니라 돌아오는 인천을 그리며, 구체적인 지표 가운데 하나로 '도심 하천'을 선정했다. 최종 목표지점은 썩은 물이 흐르고 하수구로 여겨지는 하천을 회복시켜 다양한 생물이 공존하는 생명 영역으로의 탈바꿈이었다. 그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지속적인 수질측정 결과를 BOD로 기록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분과 내에 인천의 대표적 오염하천인 승기천을 살리기 위해 2000년 12월 '승기천사랑모임(승사모)'이 결성했다. 승사모에는 승기천 유역의 모든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였다.

시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도 기획됐는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승기천환경교육, 승기천 정화활동, 승기천살리기 인간띠잇기 행사, 승기천살리기 백일장 등과 하천복원관련 연구·조사사업과 세미나, 토론회, 심포지엄 등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인천경실련과 인천의제21 등은 이를 통해 승기천살리기의 필요성과 복원 가능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감대를 얻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하천 살리기에 더 강한 탄력을 붙이기 위해 인천경실련은 내부 특별기구였던 '안전한 도시만들기 운동본부'를 '도시환경개혁운동본부'로 전환, 전문성을 갖추는 동시에 회원 및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에도 적극 나섰다.



남동 유수지 하상 시료채취

의 청계천 복원사업이 한창 전개되면서 하천살리기 붐이 형성되던 2003년 4월이었다. 환경부가 실시한 전국 4대강 389개 하천에 대한 수질오염 조사 결과 유일하게 인천의 대표적 하천인 굴포천과 승기천에서 절대 검출되어서는 안 될 양 유발물질인 페놀과 시안(CN)이 다량 검출된 것이다.

인천 시민사회는 물론 관계당국에 대비상이 걸렸었다. 인

천경실련은 성명서를 통해 공단 내 오염물질 유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수립을 촉구하고 인천시 하천관리업무 이원화를 지적하며 통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하천행정을 강력히 주문했다. 더 나아가 향후 하천관련 제 문제를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다룰 팀을 구성해 하천업무 공무원, 전문가, 민간단체 활동가, 기업 관계자 등을 참여시키자고 인천시에 제안했다.

인천시의 하천 살리기 의지 표명

2003년 5월, 그동안 인천에는 '하수구만 있을 뿐 하천은 없다'던 인천시가 '시민과 함께 하는 푸르고 깨끗한 하천만들기 종합계획'을 통해 5개 하천을 맑고 푸른 물이 흐르는 하천으로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에 인천경실련은 6월 하천만들기 종합계획에 대한 인천시 정무부시장 초청 간담회를 통해 인천시의 푸르고 깨끗한 하천만들기 종합계획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추진단 구성을 위한 TF팀 구성을 제안했다. 그 결과로 그해 7월 29일 신영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인천시 하천관련 부서인 박인규 건설방재과장과 정연중 수질보전과장, 최계운 인천대 교수(위원장), 배양섭 인천대 교수, 최혜자 인천경실련 간사, 박남수 굴포천살리기시민모임 집행위원장 등 7인으로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첫 회의를 가졌다. 행정(박인규 건설방재과장)과 시민단체(인천경실련)가 공동간사를 맡아 조직 및 운영규약 등을 마련 하천살리기추진단 구성을 위한 근간을 마련하였다.

2003년 9월 26일 시민단체, 인천시, 인천시의회, 기초단체, 연구소, 학계, 언론 등 관계자 55인으로 이뤄진 추진단(공동대표 : 인천시정무부시장, 최계운 인천대 교수)이 출범하게 된다. 11월 15일에는 승기천변에서 하천살리기추진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수 천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추진단의 구성 및 활동계획을 대내외적으로 알렸다.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출범으로부터 2009년 8월까지 인천시는 1천500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장수천, 공촌천, 나진포천, 굴포천, 승기천에 대한 대대적인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펼쳤다. 시민 내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하천운동 차원에서 하천별 네트워크를 구성

그 사이 외부에서는 독극물이 인천 하천에서 검출되는 사건이 터지게 된다. 전국적인 갯강살리기 운동이 필두로 서울시

하고 하천에 대한 복원계획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냈다.

인천하천살리기 무엇을 얻었나?

인천하천살리기운동은 거버넌스에 의한 추진 방식, 중앙 부처에서도 해내지 못했던 물 관리 업무 일원화를 해냈었다는 점과 법적 근거로서의 하천살리기 지원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는 점, NGO와 인천시가 민·관 공동 사무국을 운영했다는 점 등에서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었다.

타 시·도의 경우를 보면 비슷한 모습의 공간 조성 및 시설물 설치, 획일적인 공법의 도입 등으로 그 하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을 살리지 못한 경우가 빈번하다. 반면 인천의 하천은 본래의 생태적 특성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과 역사, 문화를 포함한 테마를 설정함으로써 개성을 지닌 하천복원 사업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일사천리, 탄탄대로의 여정만은 아니었다. 의원 발의에 의해 인천시의원 26명중 24명의 동의를 얻어 하천살리기 지원조례를 상정했으나 만장일치로 부결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겪어야 했다. 표면적으로는 조례안의 문구가 강제적이고 추진단의 역할분담과 성격이 모호하다는 게 이유였으나 속내는 파트너십을 전제로 이미 선출된 민간 공동대표를 부단장으로 격하시키려 하는 등 수천억 원의 사업비가 걸린 사업에 대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정치권 해

게모니 싸움이 있었다.

우여곡절 끝에 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이밖에 예산배정이 이뤄지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고 행정 상근인력 파견을 두고 벌인 인천시 주무부서와의 줄다리기, 업무처리의 절차와 방식, 하천살리기에 맞닿은 시각과 정서의 차이 등에 의해 빚어진 갖가지 갈등을 거쳐 하나의 좋은 선례가 되기까지 지난한 과정이 존재했다. 하지만 공동의 목표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잃지 않으려는 민·관 서로의 노력이 그러한 차이와 갈등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었다.

승기천 자연형하천 조성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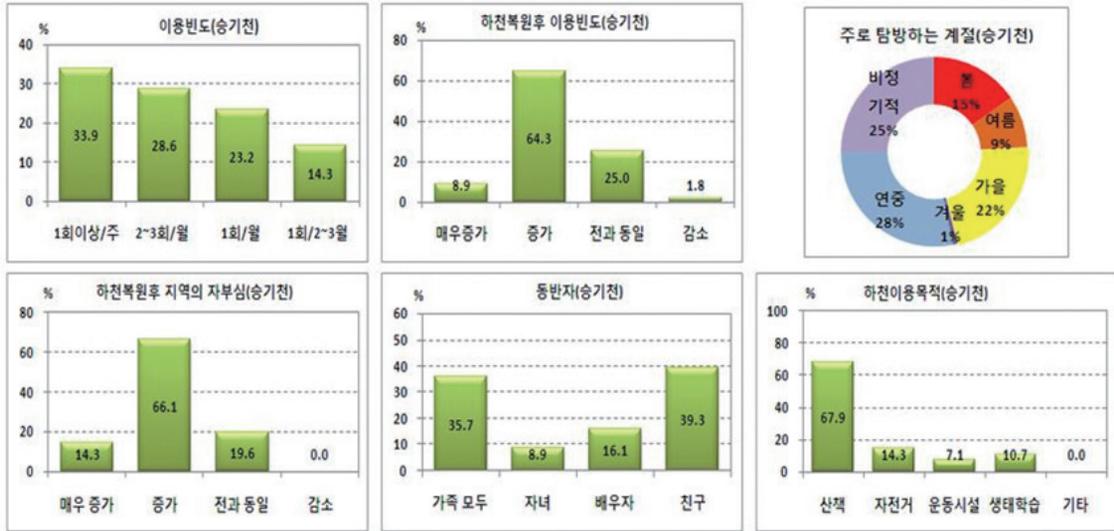
인천시 남동구와 연수구를 관통해 송도 인근 남동유수지를 거쳐 바다로 흐르는 승기천은 인천의 대표적인 오염 하천이었다. 승기천은 자연형하천 조성 사업 전까지 남동공단의 공장폐수와 생활폐수에 의한 오염물질이 많아 생태계가 죽은 하천이었다.

구분		BOD	COD	SS	T-N	T-P
승기천	개선 전	58.7	44.5	30.4	18.6	3.1
	개선 후	4.4	10.2	11.7	4.7	0.5

인천시는 지난 2003년부터 2009년 7월까지 총 379억6천300만 원을 투입해 승기천 약 6.2km 구간에 대해 자연형하천 조



승기천 미래상



승기천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성사업을 펼쳤다. 사업의 기본방향은 다양한 생물서식을 위한 수질 및 수량 개선과 생태 및 경관을 위한 유지유량을 확보하고 승기천과 주변 공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민이 즐겨찾는 수변공간으로 조성코자 하였다. 주요사업으로는 준설, 자전거도로, 산책로, 자연형호안, 습지, 여울, 하중도 등을 조성하였다.

승기천이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된 이후 물 흐름이 개선되면서 건천이었던 과거에 비해 수질이 점차 좋아지면서 악취 문제도 어느 정도 개선되었다. 실제 2010년 인천시가 발간한 '자연형하천유지관리모니터링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8월부터 2011년 3월까지 4차례에 걸쳐 승기천을 이용하는 시민 344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2.5%가 복원 사업 이후 하천 수질과 물 흐름이 좋아졌다고 대답했다.

생물상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식물상 및 식생을 보면 총 36과 114종의 불안정한 식생의 전형적인 도시하천의 모습을 보였지만,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총 8목 12과 13종 719개체, 육상곤충 총 10목 51과 100종, 어류 총 4과 5종 169개체, 양서류 2종, 조류 총 20과 36종으로 과거에 비하면 생물종도 늘어났다.

특히, 한여름 학생들과 정화활동을 하며 풀숲이 허리까지 자란 승기천을 누비고 다녔어도 뱀에 물릴까 걱정을 한번도



하지 않았었다. 왜냐하면 수많은 시간을 승기천을 살피며 다녔어도 개구리를 한 마리도 못 봤기에 승기천엔 뱀도 살수 없다는 서글픈 자신감을 가졌었다. 하지만 자연형하천조성사업 후 뱀은 수시로 눈에 띄었고 딱구렁이보다 귀하다는 황구렁이를 목격하였다는 시민들의 제보도 받은 적이 있을

정도로 승기천의 생태계가 돌아오고 있다.

하지만 2010년 지방선거 이후 하천살리기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의지 표명이 없는 상황에서 인천시 재정위기 상황과 맞물려 유지관리비 확보의 어려움과 모니터링 사업의 중단, 유지수 부족 등의 문제가 맞물리면서, 복원전 승기천의 모습(하수가 흐르는 냄새나는 하천, 잡초만 무성한 하천, 메말라

물이 없는 하천)에 대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다.

승기천변에 버려진 쓰레기와 퇴적물, 부유물질이 쌓이고 수질이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승기천 상류부

구월 농수산물 도매시장 직하류에 위치한 승기천의 북개 암거 종점부에서 승기2교 사이에 위치한 고지부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좌안은 주차장, 우안은 차량견인 보관소로 이용되고 있었다. 우안으로 승기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차집관로가 매설되어 있고 암거 종점부에는 합류식으로 오수가 차집되어 차집관로로 유입되고 있다. 평상시 본 구간은 우수흐름이 없는 우수정체구간이며 주차장 차량견인 보관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었다.

본 구간은 당초계획에는 없었으나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콘크리트 포장을 제거하고 하천공간으로 복원하였다. 주변에 농수산물 도매시장, 백화점, 시외버스터미널 등 공공 시설물이 인접하고 있어 하천에서 휴식과 문화생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천을 경관화하여 공간계획을 수립하였다.



승기천 상류부 과거



승기천 상류부 현재

승기천 중류부

선학교부터 남동대교까지 이르는 승기천 중류는 우안으로 연수택지가 조성되어 있어 주거지와 인접하며, 좌안으로는 남동공단이 위치하여 근로자들이 많이 상주한다. 문제점으로는 경작으로 인한 고수부지와 천변식생대가 훼손되어 있고 또한 원인재 등 문화재가 위치하고 있다. 주민들의 참여와 여가활용 공간으로 조성코자 하였다.

본 구간은 지역주민의 높은 관심과 이용이 예상되는 지역

으로, 저수호안의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자연형호안으로 조성, 저수로의 사행을 유도하였다. 도입 시설로는 습지, 실개천, 밀원식물원, 수질정화시설과 화관목 식재,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한 환경사 진입로를 설치하였다.



승기천 중류부 과거



승기천 중류부 현재

승기천 하류부

본 구간은 남동대교부터 동막교에 이른다. 승기천의 테마인 철새가 날아들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린 공간으로 제내지에 시설녹지, 공원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고수부지의 갈대군락지를 보존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갈대 군락지를 보존하고 전구간 갈대 군락지를 조성하여 철새들을 사람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였다.



승기천 하류부 과거



승기천 하류부 현재

승기천 유수지

승기천의 종착지는 남동공단 유수지다. 구월동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내려온 물이 20여만평에 이르는 남동공단 유수로 흘러들었다가 수문을 통해 바다로 빠져나간다. 1992년 완공된 남동공단 유수지는 한국토지공사가 남동공단을 조성하면서 생겼다. 바다와 닿은 갯골수로에 제방을 쌓아 만든 남동공단의 홍수조절용 방재시설이다.



승기천 유수지 과거 모습



승기천 유수지의 철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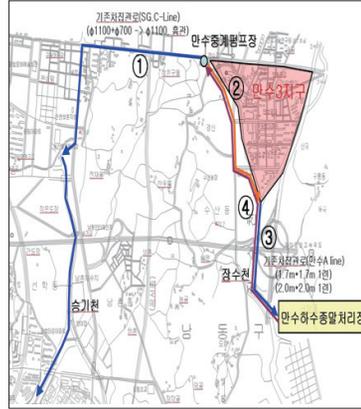
수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검은머리갈매기와 노랑부리백로, 저어새, 검은머리물떼새, 말뚝가리, 황조롱이 등 법정보호종이 발견되고 있고 꿩이갈매기와 흰뺨검둥오리, 쇠오리 등 34종의 조류가 관찰되기도 한다. 1990년대 인천국제공항 건설과 송도 매립으로 이어지는 개발바람으로 갈 곳 잃은 새들이 날아들었다.

승기천 남은 과제

승기천은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협의를 위해 설계와 시공 기간이 유독 오래 걸렸었다. 유지용수 공급방안 결정(어떤 물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 공간계획 수립 등 설계 초기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진행하였다. 그러다 보니 1년에서 1년 6개월여 정도인 타 시도의 설계 기간보다 배 이상의 기간이 소요됐다. 인천의 대표 하천이다보니 시민들의 관심과 애정과 비례하여 갈등도 그만큼 컸다.

2005년 인천경실련이 뽑은 2005년 인천을 달군 10대 뉴스 1위로 승기천 유지용수 확보결정-자연형하천 본격 추진이 뽑혔다. 승기천 2단계 실시설계사업의 최대 쟁점이었던 유지용수 공급방안이 합의점을 찾은 것이다.

당초 승기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상류로 압송하여 유지용수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유지용수 관로설치설비용(전체 사업비 340억 중 150억원-전체 사업비의 44% 해당)이 과다하다고 지적되어 왔다. 근거리에 위치한 만수하수처리장 처



민간에서 제시한 승기천 유지용수 공급방안 관로도

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이다.

승기천 유지유량은 승기천에서 자연발생하는 자연수를 기본으로 하고 부족분을 하수처리장 처리수로 채우기로 했다. 승기천유역인 남촌동 지류에서 발생하는 자연수 1만톤과 만수하수 처리장 처리수 7만톤으로 하루 8만톤을 유지용수로 흘리기로 하였다.

다만,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다보니 질소와 인으로 인한 수질문제가 불가피하여 만수하수처리장 처리수를 유지용수로 공급하고 6개월 동안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이해 합당한 수처리 시설을 승기천 상류부에 도입키로 하였으나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최소한의 수질유지를 위해 현재 하루 4만톤의 유지용수가 필요하나 현실은 이에 훨씬 못 미치고 있는 상황으로 심각한 수량의 부족을 겪고 있다. 하루빨리 승기천에 적정량의 유지용수를 공급해야 하며, 승기천 수질에 합당한 수처리 시설을 도입하여 수질이 개선되도록 해야 된다.

이제 승기천은 과거에 비하면 수질이며, 수량, 악취, 생태계 등이 많이 개선되었다. 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는 아직 멀었다. 하천의 핵심은 '물'이다. 맑고 깨끗한 물이 승기천에 흘러들때 오염된 승기천을 살리고자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참여하였던 초기 승기천의 지표인 물잠자리가 날아다닐 때 비로소 승기천은 더욱더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하천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

리수를 기존 관로를 활용하여 유지용수로 공급하면 관로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시와 관계기관들은 많은 토론 끝에 합의를 이루어 냈으로써 승기천